

# 의복의 색과 문양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소라 · 김재숙<sup>†</sup>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 Effects of Motif Categories and Colors of Dress on Evaluating Impressions of Dress Wearers -Focusing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o Ra Lee · Jae-Sook Kim<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8. 2. 28.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otif categories and motif colors on evaluating impressions of dress wearers.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a quasi experimental basis, with subjects numbering 187 male and 207 female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in the period from march 19th to march 31st, 2007. A set of stimuli of dress wearers and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were developed. The stimuli were thirteen photographs editing by Youngwoo CAD system. Variables included; (a) motif colour(red, blue, achromatic and white) (b) motif categories(flower, paisley, stripes, zebra effect and plain).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 to measure impressions of dress wearer stimuli included 22 sets of bi-polar adjectives. The data were analysed by factor analysis and ANOVA and the major finding were as follows. Four factors emerged to account for dimension of impression. There were salience, attractiveness, comfort and femininity. The motif category effected on the four impression dimensions while the motif color effected on salience, comfort and softness sensory dimensions, and the results supported the gestalt theory of the impression perception.

**Key words** : Impression, Motif category, Motif color; 인상, 문양, 색

### I. 서 론

우리는 타인을 대면할 때 그의 외적인 단서들(모습이나 언어 또는 행동 등)을 통해 그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첫 인상은 다른 단서를 무시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인과의 대면 시 맨 처음 제공되

는 단서들은 인상형성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첫 인상형성과정에서 주어지는 여러 정보 중 의복은 가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지는 정보이며 인상형성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타인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의복은 색, 문양, 형태, 질감 등 여러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색과 문양은 가장 시각적인 요소로써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처음 반응하고 강하게 반응되는 요소이다. 의복의 색은 가장 표현적인 요소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jaesook@cnu.ac.kr

고,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색이 지닌 고유의 상징성 및 색의 연상에 의해 나타나는 색의 성격은 문화나 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어느 정도 일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다. 색과 함께 중요한 의복의 구성요소인 문양은 선, 공간, 형, 색에 따라 지각되는 느낌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색과 문양의 조합에 따라 의복착용자의 인상 역시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색과 문양에 대한 연구는 많은 의류학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어 왔지만 색과 문양을 조합하여 살펴본 연구는 그에 비해 많지 않으며, 특히 여러 종류의 문양 디자인의 수준을 같게 하여 살펴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색상과 문양을 일정한 수준으로 조합하여 이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을 밝히고 의복의 문양과 색상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인상형성

인상형성이란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타인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과정이다. 의류학에서는 형태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의복 및 신체적 외모에 대한 인상형성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개인은 선택적으로 정보를 택하고 그것을 전체입력으로부터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의 유의미한 형태로 조직화한다고 가정한다(김경원 외, 2004; 팽숙경, 강경자, 2006).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단서로는 색채, 문양, 의복유형, 의복스타일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의복변인들의 조합에 의해 어떠한 인상이 형성되며, 각 의복변인들은 전체적인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착용자와 관찰자, 맥락요인과 체형, 연령, 헤어스타일과 색상, 인종, 얼굴형태, 신체장애 등의 신체적 외모 변인 등에 대한 인상형성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재숙, 송경자, 2002; 팽숙경, 강경자, 2007).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색과 문양을 중심으로 의복착용자의 인상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의복의 색

색은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볼 때 가장 먼저 인지되

는 중요한 요소로서 객관적 의미의 색은 스펙트럼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빛 자극에 포함되는 파장(wavelength)을 의미하며, 같은 배경에 놓인 두 영역이 같은 형태, 조직, 노출기간을 가지나, 다른 스펙트럼의 위치를 가지게 될 때 두 영역의 지각되는 차이가 색채의 차이라고 정의된다. 영국 색채협회에서의 색의 정의는 빛의 근원을 포함하며 그들이 redness, greenness, whiteness, greyness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물질적인 대상의 한 특징이라고 정의하였다(Matlin & Foley, 1992). 의복에서의 색의 지각은 색이 지닌 기본적인 이미지와 지각하는 사람의 환경, 그리고 지각자의 특성에 따라 그 지각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색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의복의 색은 색상과 톤을 위주로 의복색에 대한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가 연구되어 지고 있다.

의복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성역할, GBI와 의복의 형태 및 색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들은 무채색계열과 파란색계열의 색을 선호하였고, 여자 대학생은 무채색과 초록색을 선호하였다. 반면 힘오하는 일반색은 남녀 모두 빨간색과 노란색 계열의 색으로 나타났다. 의복색의 선호색은 남녀 모두 무채색과 파란계열의 색을 선호하였으며, 소유한 의복 역시 무채색계열과 파란색계열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성이 입었을 때의 선호색은 무채색계열과 빨간색계열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험자들은 전체적으로 무채색을 선호하고 있었으나 그 외의 선호색을 살펴보면 자신의 선호하는 일반색과 의복색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의 의복색과 이성의 의복색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나타났다(김재숙 외, 2004). 김미영(2002)의 연구에서는 일반색 선호도와 의복색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색 선호도는 주로 파랑계열과 남보라계열 등의 한색계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황계열, 노랑계열 등의 난색계열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복색 선호도에서는 무채색계열과 갈색계열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대체로 일반색 선호도의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 의복이라는 특성에 의해 갈색계열이 선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색에 대한 선호의 특징이 의복의 색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여성의 자아개념과 의복색채 선호도와외의 관계연구(석재은, 1993)에서 구체적인 색 선호에 의한 내적 특성을 살펴보면 빨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힘차고 충동적이며 활동적이고, 파

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밝은 노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며 청록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적인 경향을 지닌다고 하였다. 반면 진한청색은 성취력이 있고 평화적 마음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선호된다. 이와 같이 색은 사람들의 내면적인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서임을 알 수 있다.

### 3. 의복의 문양

문양은 장식적 효과와 함께 의복 디자인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서 중요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문양은, 다른 디자인 요소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조작성이 가능하고, 그 자체로서 시각효과를 나타내는 매개체 및 구성요소의 역할을 한다(남기선, 2003). 본 연구에 사용된 문양은 꽃문양,페이즐리문양, 동물문양(얼룩말문양), 스트라이프문양이며, 문양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꽃문양은 대표적인 식물문양의 하나로서 꽃잎의 형태, 암술과 수술, 잎사귀, 가지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구성적 꽃문양과 잎, 꽃의 형태를 기하학적인 점, 선, 면으로 나타내거나 빛의 터치 등으로 나타낸 추상적 꽃문양이 있다. 페이즐리문양은 인도의 캐시미르 직물의 문양을 재현시킨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해진 것이다. 페이즐리문양의 기원에 관해서는 학문적 연구가 분명하지 않아 정설은 없으나 캐시미르 숲에 사용되어 발전된 것으로 인도 캐시미르 지방과 터키 및 페르시아 지방을 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페이즐리의 기본 모티브는 인도에서 Bota라고 알려진 솔방울이다. 그 모양은 시기와 유행에 따라 길어지고, 짧아지며, 겹쳐지거나 얽혀지는 등의 변형된 형태로 표현된다. 페이즐리문양이라고 불리는 식물의 형태는 가운데 가지를 주축으로 대칭적 모양이며, 꼭지에서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이 끝의 기울임은 나뭇잎이 오므렸다 퍼지며 쪽 뻗을 때 생기는 것과 같은 생명감을 지니고 있어 완전한 대칭성을 이룬다(남미경, 2004). 동물문양은 고대부터 동물패턴 또는 신비스러움과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직물패턴으로 많이 애용되었는데, 동물의 형태, 모피나, 스킨의 독특한 모양을 사실적으로 또는 구상화하여 표현하며 야생적이면서도 자극적인 분위기를 준다. 동물문양의 소재는 주로 새, 나비, 고양이, 개, 곰, 호랑이, 짐승, 얼룩말이나 파충류, 곤충 등이 소재로 쓰인다(남기선, 2003). 스트라이프문양

은 일방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형식을 취하며, 방향에 따라 가로문양, 세로문양, 사선문양이 있다. 스트라이프문양은 중세시대 하인, 범죄자 등 하층계급을 차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자동차의 안전지대 등 차선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등 조직체계와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 문양은 어느 민족에게나 널리 사용된 문양으로 추상에 비해 정형이며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 명쾌한 느낌을 지니고 있다. 스트라이프문양은 줄의 간격, 굵이, 모양 등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스트라이프문양 중 가로문양은 안정, 고요, 침착, 통일 등의 상태를 연상하게 되고, 세로문양은 굳건하고 엄정한 성질을 나타내며 사선문양은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 문양에 관한 연구는 문양의 종류, 크기, 배열 등 여러 방법으로 연구되어져 왔다(박성경, 2005).

의복의 문양에 따른 의복 및 직물 선호를 연구한 이소라, 김재숙(2007)의 연구에서는 여러 문양 중 가장 기초적인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도트, 스트라이프, 체크문양으로 구성되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에서 문양에 따른 인상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중 매력성에서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스트라이프문양이 가장 매력적으로 평가되었다.

간호사복을 대상으로 한 문양 및 색의 효과에 관한 연구(김재숙, 이희승, 2004)에서 민무늬 간호사복은 평가성이 높게 지각되어 봉사하고, 친절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줄무늬는 이기적이고, 비협조적일 것이라 평가되었다. 사회성에서는 꽃무늬가 높게 평가되어 매력 있게 평가되었다. 반면 민무늬는 마음에 들지 않고 촌스러운 것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꽃무늬는 활동적이고, 강렬한 무늬로 평가되었고, 줄무늬는 무능력해보이고, 믿음직하지 않게 평가되었다. 민무늬는 가장 깔끔하고 신뢰감이 들고 능력 있게 평가된 반면 역동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성별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서는 남자가 평가성과 사회성에서 더 긍정적이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문영보, 이인자(1993)의 외모변인이 지적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외모보다는 복식스타일, 복식문양이 지적 인상형성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며, 문양은 단색과 줄문양이 도트문양보다 지적인상을 주었다.

복식무늬가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혜숙(1999)은 무늬종류를 식물무늬(국화)와 동물무늬(학)로 구분하였고, 무늬의 형태는 사실형

과 양식형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무늬종류, 무늬형태에 따라서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매력·품위성, 평가성, 현실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현시성차원에서 무늬종류(동물무늬, 식물무늬)와 무늬배열(전체배열, 전통적배열, 현대적배열)에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무늬가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꽃문양, 페이즐리문양, 동물문양(얼룩말문양), 스트라이프문양에 대한 의복착용자의 인상용색과 같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의복의 색과 문양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알아보기 위해 의복자극물과 인상차원과 선호도 질문지를 이용한 준 실험연구이다.

#### 1. 자극물 제작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양을 제작하기 위해 "Textile Design 2000(심춘섭, 2000)", "Woven Textile Design in Britain 1750 to 1850(Meller & Elffers, 1991)" 등의 텍스타일 전문서적에 수록된 복식의 대표적인 문양들을 추출하였다. 수록빈도가 높은 문양들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4가지(꽃문양, 페이즐리문양, 동물문양, 스트라이프문양)문양을 선정하였으며, 네 문양의 선정은 준거집단(의류학과 교수 및 강사 6인)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소재에 자주 사용되고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정형화하기에 편리한 가에 중점을 두어 선정하였다. 식물문양을 대표하는 꽃문양과 동물문양을 대표하는 얼룩말문양, 추상적인 문양의 하나인 페이즐리문양, 기하학적인 문양 중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선호도가 높았던 스트라이프 문양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색에 따른 착용자 인상 및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소재 및 의복의 색은 색채의 기본색인 빨강, 노랑, 파랑의 3색을 기준으로 이 중에 노란색을 제외한 빨간색계열, 파란색계열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색들의 전문가 집단과의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쳐 연구에 좀 더 정확성을 부여하기 위해 유행색을 배제하였으며, 문양의 색배열은 문양의 색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동일색배열을 채택하였으며, 소재 및 의복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도록 포

토샵의 기본 색채계 중 ANPA 색채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색상의 효과를 배제한 흰색의 자극물이 기본색으로 연구에 사용되었다.

의복착용자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흰색의 기본 원피스를 제작하였다. 원피스의 디자인은 라운드네크라인과 민소매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린세스라인으로 구성하였고, 원피스의 길이는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오도록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원피스를 기본형으로 한 까닭은 최대한 연구변인(문양의 종류, 색) 외의 가외변인을 줄이고자 함이다.

자극물의 의복착용자는 머리를 뒤로 묶고, 정면을 보게 하여 착용자의 인상이나 자세가 자극물의 평가에 되도록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 촬영된 사진의 배경은 다시 회색 바탕으로 깔끔하게 제작하여 배경이 평가에 주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줄였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자극물은 영우 Texpro(Ver. 8.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매 좌, 우, 스커트 앞면을 세 등분하여 문양이 자연스럽게 입혀지도록 그리드 작업을 자세히 하였으며, 문양 및 색 자극물 이미지를 투명도 160%로 하여 그림자 효과 및 실제 이미지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사진자극물은 10×15(cm) 크기의 칼라사진으로 인화하여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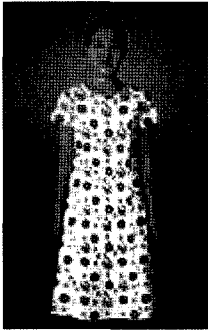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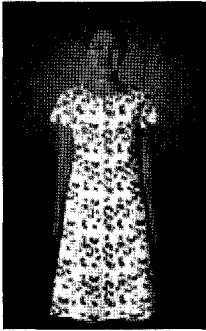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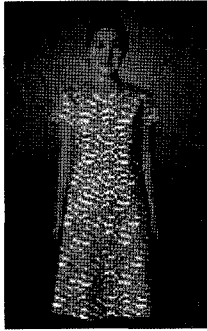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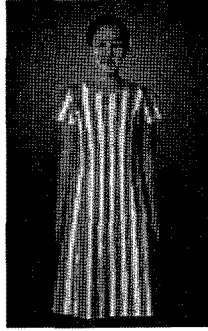
#### 2. 측정도구의 제작

##### 1) 인상차원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인상차원 측정도구는 이소라, 김재숙(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3항목의 형용사 쌍을 7점 의미미분 척도로 제작하였다.

##### 2) 선호도 측정도구

문양 및 의복의 선호도 측정도구는 이소라, 김재숙(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존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선호도의 측정문항은 주관적선호도 측정을 위한 '호감이 가는' 문항과 객관적선호도 측정을 위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항, 구매의도 측정을 위한 '구입하고 싶은' 문항 및 추천의도 측정을 위한 '추천하고 싶은' 문항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선호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각 문항을 각각 살펴보았으며 주관적선호도, 객관적선호도, 구매의도, 추천의도로 명명하였다.

문양의 종류	꽃 (flower)	페이즐리 (paisley)	얼룩말 (zebra)	스트라이프 (stripe)
의복착용자 자극물				
문양에 표현된 색상정보	빨간색계열 (6색상) R:255 G:237 B:243 R:255 G:224 B:232 R:255 G:189 B:203 R:255 G:139 B:162 R:255 G:103 B:133 R:255 G: 62 B:101	파란색계열 (6색상) R:241 G:245 B:255 R:229 G:236 B:255 R:197 G:211 B:248 R:151 G:172 B:235 R:114 G:147 B:255 R: 66 G:114 B:255	무채색계열 (6색상) Bl : 5 Bl : 10 Bl : 22 Bl : 40 Bl : 52 Bl : 64	

R: red, G: green, B: blue, Bl : black

<그림 1> 의복착용자 자극물 제작

### 3. 연구대상 및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설계는 피험자간 설계로써 한 사람이 한 자극물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39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설문에 불성실하게 답했거나 완성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394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남학생이 187명(47.5%), 여학생이 207명(52.5%)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행되었으며 분산분석, 회귀분석, 평균비교 등이 사용되었다.

## IV. 연구결과

### 1.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

의복착용자 인상의 구조적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의복착용자 인상에 대한 의미미분척도 22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각 요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은 현시성, 매력성, 안락감, 온유성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차원은 '리듬있는-단조로운', '독특한-평범한' 등의 독특하고 눈에 띄는 것과 관련한 9쌍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다. 설명변량은 21.12%로 4가지 차원 중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현시성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차원은 '세련된-촌스러운', '비싸보이는-값싸보이는' 등 자극물의 매력 및 선호와 관련된 4쌍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력성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차원은 '시원한-답답한', '편안한-불편한' 등의 편안함과 안락감과 관련한 6쌍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안락감으로 명명하였으며, 네 번째 차원은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 등의 부드럽고 여성스러움과 관련한 3쌍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으로 명명하였다.

### 2. 의복착용자의 문양 및 색에 따른 인상차원과 선호도

1) 의복착용자의 문양 및 색이 인상차원에 미치는 효과  
의복착용자의 문양의 종류 및 색이 인상차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주

<표 1>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 분석

(N=394)

차원	의미미분 척도	요인부하량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설명변량)
		1	2	3	4		
현시성 (9문항)	동적인-정적인	.808	.024	.004	-.034	4.896	21.129% (21.129%)
	리듬있는-단조로운	.768	.041	.025	-.010		
	진보적인-보수적인	.743	.246	.093	.032		
	화려한-소박한	.728	.206	.052	.050		
	독특한-평범한	.699	.015	-.124	-.005		
	재미있는-재미없는	.676	-.017	.173	.088		
	단정하지않은-단정한	.614	-.065	-.267	-.159		
	눈에띄는-눈에띄지않는	.573	-.241	.368	.182		
	현대적인-고전적인	.538	.397	.104	-.082		
매력성 (4문항)	세련된-촌스러운	.144	.835	.036	.023	3.286	14.151% (35.280%)
	예쁜-미운	-.046	.725	.199	.194		
	적절한-적절치않은	-.049	.723	.118	.134		
	비싸보이는-값싸보이는	.147	.709	-.080	.050		
안락감 (6문항)	시원한-답답한	.142	.162	.789	-.247	2.370	13.826% (49.106%)
	밝은-어두운	.163	-.258	.682	.290		
	산뜻한-칙칙한	.164	.288	.671	.161		
	가벼운-무거운	-.036	-.025	.664	.065		
	편안한-불편한	-.209	.186	.620	.059		
온유성 (3문항)	따뜻한-차가운	.038	.006	-.215	.796	1.467	8.126% (57.232%)
	로맨틱한-매니쉬한	-.049	.228	.220	.616		
	부드러운-딱딱한	.031	.162	.332	.614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문양의 종류는 현시성, 매력성, 안락감, 온유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색은 현시성, 안락감, 온유성에 영향을 미쳤다.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안락감, 온유성차원에서 그 효과가 나타났다(표 2).

문양의 종류에 따른 인상차원은 현시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문양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성에서는 의복으로 표현되었을 때가 문양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색에 따른 인상차원 평가에

서는 현시성, 안락감, 온유성차원 모두 소재자극물에 대한 색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복착용자의 문양 및 색이 선호도에 미치는 효과  
의복착용자의 문양 및 색이 선호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문양과 색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문양만이 주관적선호도와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호도에

<표 2> 의복착용자의 문양 및 색이 인상차원에 미치는 효과

(N=394)

자극물 종류(의복)	인상차원	현시성	매력성	안락감	온유성
		주효과	문양	38.660***	3.740*
	색	14.687***		46.996***	32.265***
상호작용효과	문양*색			4.006**	2.644*

\*p<.05, \*\*p<.01, \*\*\*p<.001, 표에 제시된 값은 F값임.

<표 3> 의복착용자의 문양 및 색이 선호도에 미치는 효과 (N=394)

자극물 종류(의복)		선호도	주관적선호도	추천의도
주효과	문양		4.066 **	4.413 **

\*\*p<.01, 표에 제시된 값은 F값임.

대한 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 사용된 색이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 유행색을 배제한 것으로서 선호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 의복착용자의 문양에 따른 인상차원 평균비교

의복착용자의 문양에 따른 인상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상차원의 모든 차원에서 문양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성에서는 얼룩말문양이 가장 현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민무늬가 가장 현시적이지 않은 문양으로 평가되었다. 매력성의 경우 민무늬가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확실한 집단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민무늬, 페이지리, 스트라이프, 얼룩말, 꽃 문양 순으로 매력성이 비슷하게 평가되었다. 안락감과 온유성에서는 민무늬가 가장 안락한 문양으로 평가되었으며 얼룩말과 스트라이프가 안락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4).

4) 의복착용자의 색에 따른 인상차원 평균비교

의복착용자의 색에 따른 인상차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매력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평균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안락감에서 색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현시성에서는 빨간색계열과 파란색계열이 가장 현시적인 것으로 나

<표 4> 의복착용자의 문양에 따른 인상차원 평균비교 (N=394)

인상차원 문양	현시성		매력성		안락감		온유성	
	값	구분	값	구분	값	구분	값	구분
꽃	3.470	BC	2.933	C	4.812	B	4.680	B
페이지리	3.686	B	3.315	AB	4.490	BC	4.503	B
얼룩말	4.660	A	2.971	BC	4.339	C	3.998	C
스트라이프	3.116	C	2.984	BC	4.200	C	3.786	C
민무늬	2.441	D	3.500	A	5.257	A	5.048	A
F-value	38.660***		3.740*		5.817**		23.494***	

\*p<.05, \*\*p<.01, \*\*\*p<.001, 표에 제시된 값은 평균값임.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한 집단구분임.

<표 5> 의복착용자의 색에 따른 인상차원 평균비교 (N=394)

인상차원 색	현시성		안락감		온유성	
	값	구분	값	구분	값	구분
빨간색계열	3.967	A	4.560	B	4.695	B
파란색계열	3.815	A	5.014	A	3.899	C
무채색계열	3.343	B	3.780	C	4.133	C
흰색	2.441	C	5.257	A	5.048	A
F-value	14.687***		46.996***		32.265***	

\*\*\*p<.001, 표에 제시된 값은 평균값임.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한 집단구분임.

타났으며, 매력성에서는 흰색과 무채색계열이 비교적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안락감에서는 흰색과 파란색계열을 가장 안락한 색채로 평가하였으며, 온유성에서는 흰색을 가장 온유한 색채로 무채색과 파란색을 가장 온유하지 않은 색채로 평가하였다(표 5).

5) 의복착용자의 문양에 따른 선호도 평균비교

의복착용자의 문양에 따른 선호도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선호도와 추천의도에서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선호도 항목에서는 민무늬가 가장 선호되는 문양으로 평가되었고, 추천의도에서는 차이가 뚜렷하진 않았지만 다른 문양에 비해 얼룩말문양의 선호도가 낮게 평가되었다(표 6).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문양의 종류가 대부분의 인상차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는 김재숙, 이희승(2004), 이유진, 이수철(2004), 이소라, 김재숙(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문양의 종류가 인상차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본

<표 6> 의복착용자의 문양에 따른 선호도 평균비교 (N=394)

문양	선호도		추천의도	
	값	구분	값	구분
꽃	2.350	BC	2.310	AB
페이지리	2.598	B	2.500	A
얼룩말	1.921	C	1.841	B
스트라이프	2.494	B	2.365	A
민무늬	3.238	A	2.619	A
F-value	4.066**		4.413**	

\*\*p<.01, 표에 제시된 값은 평균값임.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에 의한 집단구분임.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매력성차원 평가에 색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은 물방울무늬에 대한 이유진(2005)의 연구에서 색에 따른 주관적 선호도 평가에 차이가 없었던 것과 일치한다. 각 인상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시성과 매력성은 적용대상의 차이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안락감과 온유성에서는 적용대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적게 나타났으며, 안락감은 색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유성의 평가에서는 문양의 종류와 색의 차이가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양의 색이 안락감차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물방울무늬에 대한 이유진(2005)의 연구에서 본 연구의 안락감의 문양에 해당하는 형용사 쌍에서 색에 따른 평가 차이가 많이 나타난 것과 일치하며, 안락감 평가의 경우 색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복에 대한 김재숙, 이희승(2004)의 연구에서 간호사복의 이미지(평가성, 사회성, 역능성, 역동성)에 색상차이가 나타나 인상은 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복색채의 감성구조에 대한 남수진(1998)의 연구에서 파란색계열과 무채색계열은 남성적이고 차가운 이미지 공간에 위치한다고 나타난 것은 본 연구결과인 파란색계열과 무채색계열의 온유성이 다른 색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과 일치한다.

#### 6) 의복착용자의 평가에서 인상차원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의복착용자의 평가에서 의복착용자의 인상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산출되었으며, 매력성과 안락감은 정적인 영향을, 현시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R제곱값은 0.469로써 약 46.9%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P=0.871A+0.091\times C-0.064S-0.582$$

P: 선호도(preferance) A: 매력성(attraction)

C: 안락감(comfort) S: 현시성(significant)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상차원은 매력성, 안락감, 현시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온유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매력성의 경우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안락감은 작지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에 비해 현시성은 오히려 부적인 영

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 매력성이 선호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차원으로 밝혀졌으며, 현시성은 오히려 선호도를 더 떨어뜨리는 차원으로 디자인 제작 시에 현시성이 높은 요소들을 되도록 배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박영희(2005b)의 연구에서 남녀 피험자 모두 매력성이 선호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차원으로 나타났으며 박영희(2005a)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매력성은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고, 독특성은 구매욕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복의 색과 문양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394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를 이용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현시성, 매력성, 안락감, 온유성의 네 가지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현시성이 가장 설명력있는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두드러졌던 평가성 대신 본 연구에서 현시성이 주요 차원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가 의복착용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의복의 색과 문양에 중점을 두었기에 자극물의 시각효과가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문양의 종류는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대한 4가지 차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문양의 색은 매력성을 제외한 현시성, 안락감, 온유성차원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문양의 종류가 의복착용자의 모든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의복착용자의 인상 평가에서 문양의 종류가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현시성과 온유성에서 문양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디자인 설계 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양의 색은 매력성에서 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락감과 온유성, 현시성평가에서 문양의 색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 문양의 색 역시 인상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고, 매력성에서 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가 준실험연구이기 때문에 자극물의 구성상 유행색을 배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력성의 평가에



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문양의 종류와 색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선호도 분석결과 문양의 종류는 개관적 선호도와 추천의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양의 색에 따른 선호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선호도의 경우 민무늬가 다른 자극물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추천의도에서는 얼룩말을 제외한 나머지 자극물이 비슷하게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것은 비교적 뚜렷하게 민무늬를 지지하였지만 남에게 추천할 경우 보다 다양한 문양을 추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문양의 색에 따른 선호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앞서 말한 매력성의 평가에서 차이가 나지 않은 것과 비슷한 결과로 유행색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복의 문양과 색이 인상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로 인상형성이론을 지지하였으며, 문양의 종류는 색보다 의복착용자의 인상 및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복의 문양이 소비자의 의복선택 시에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의복디자인의 설계 시에 문양에 따른 인상효과를 미리 염두에 두고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문양의 종류와 색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로 패션디자인 설계 시와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준 실험연구로써 유행색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색의 선호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유행색에 대한 문양의 종류와 색의 효과를 살펴본다면 보다 다양한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경원, 탁혜령, 고애란. (2004). 의복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에서의 순서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7), 995-1006.
- 김미영. (2002). 일반색, 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6(8), 1165-1176.
- 김재숙, 송경자. (2002). 체형 및 의복색이 남자 아동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2), 29-37.
- 김재숙, 이소라, 강현옥, 조은옥. (2004). 남녀 대학생의 의복디자인 및 색 선호에 관한 연구-남성 착용자를 중심으로.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7(1), 47-60.
- 김재숙, 이희승. (2004). 색과 문양의 감성이미지 효과-간호사복을 대상으로. *복식문화연구*, 12(3), 379-391.
- 남기선. (2003). *한국 여대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복식문양 선호 특성*.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미경. (2004). *페이즐리(Paisley)문양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수진. (1998). *대구·전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복색채 감성 구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영보, 이인자. (1993). 외모변인이 지적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20, 17-30.
- 박선경. (2005). 줄무늬 문양 복식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역사적 고찰-중세부터 19C 말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3(3), 391-405.
- 박영희. (2005a). 당초문양의 특성변인에 따른 감성이미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2), 169-178.
- 박영희. (2005b).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당초문양의 감성 이미지. *복식*, 55(6), 33-44.
- 석재은. (1993). *성인여성의 자아개념과 의복색채 선호도와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춘섭. (2000). *텍스타일 디자인 2000* (개정판). 서울: 대광인쇄사.
- 이소라, 김재숙. (2007). 의복의 문양에 따른 의복 및 직물 선호-포카다트, 스트라이프, 체크문양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5(2), 193-202.
- 이유진. (2005). 텍스타일 디자인(색과 문양)이 피복의 시각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1)-일본인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지*, 19(1), 37-46.
- 이유진, 이수철. (2004). 텍스타일 디자인의 문양과 색이 감성에 미치는 영향-시각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0(3), 159-169.
- 이혜숙. (1999). 복식무늬가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3(7), 921-928.
- 팽숙경, 강경자. (2006). 체형과 의복색, 톤조합이 20대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한난색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0(4), 41-55.
- 팽숙경, 강경자. (2007). 의복색, 톤조합, 의복유형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1(3), 9-20.
- Matlin, M. W. & Foley, H. J. (1992). *Sensation and perception* (3rd ed.). MA: Allyn and Bacon.
- Meller, S. & Elffers, J. (1991). *Textile designs*. London: Thames & Hudson.